

금치일언 비록 천 마디 말을 외
우더라도 글귀의 뜻을 바
르게 알지 못하면 한 가지 이치라도 들어
뜻을 명할만 못하다
(범구경·술천품 280절)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회동3가 26(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2770-2057)

제 1178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 (불기 2539년) 6월 7일 (수요일) 11



◇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6·3조국통일과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를 위한 남북해의 청년학생대회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고려대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학술행사 중 청년의 과제와 통일방안을 제시한 '통일 대 토론회' 장면이다. (취재부)

전공최저이수학점 하향 조정 최대 3개까지 복수전공 가능

정부는 지난 5월31일 교육개혁위원회 발표를 통해 대학간, 학과간, 교수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이 학과와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다전공·복합학문 연구가 가능하도록 최소 전공인정학점을 '총 이수학점의 4분의1에서 6분의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도입했다.

본교는 각 대학별로 졸업최저이수학점의 1/4수준에서 결정해 3개까지 복수전공이 가능하다.

전공학점축소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수강지도교수제=학생자율의 학과에 따른 부차용을 최소화하고 학문연구에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케하기 위해 도입 △선수와목 지정제=각 전공 교과목중 해당교과목 수강에 필요한 기초적 성격의 교과목을 학문적 체계에 따라 지정 △전공교과목 개설학점은 전공교과목은 1백학점이내에서 개설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부전공은 현행 학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특정전공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 인정하되 부전공에 대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전공은 특정전공을 전공최저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복수학위 인정 등이 있다.

또한 교양 및 전공학점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한편 학과간에 유사한 교육내용

◇전공최저이수학점 조정

구분	졸업최저이수학점	전공최저이수학점	복수전공학점	전공필수
개정안	120-140학점사이에서 대학별로 학문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	55-65학점사이에서 대학별로 결정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의 50학점 이상 취득	전공필수는 전공최저 이수 학점의 30%이내로 지정
조정안	위와 같음	각대학별로 졸업최저이수학점의 1/4수준에서 결정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전공최저이수 학점이상 취득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구분은 폐지

으로 중복 개설된 교과목은 교과목명칭을 통일하여 학과별로 개설하되, 학생은 소속학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강토록 한다.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향상시키며 "장차 대학평가가 따른 차등·재정지원체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96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이 위와같이 융통성있게 도입·시행한다"며 학습부의 관계자는 말했다.

영어연수 점수 연장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는 5월 서울 10명, 경주 7명이 접수한 미국매인대학의 영어연수생의 접수기간을 오는(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일본 대정대 유학생의 1차

합격자는 국제부 앞에 게시중이며 최종 합격자는 7월 중순경에 있을 문무상의 발표로 확정된다.

본사시령

- ◇임수습기자
▲신동호(경상대 무역1)
▲박미희(사범대 역사교육1)
▲김기영(사범대 교육1)
▲이기표(아간강좌 신문방송1)
(이상 6월2일차)

알림

제1178호가 95년 1학기 중 강호입니다.
개강호는 8월23일자로 발행합니다.

대학종합평가 1년 연기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본교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의 시기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으로 1년 연기하기로 확정됐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보고로 논의된 종합평가 연기안은 지난달 9일 열린 교무위원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됐으며 이후 재단법인의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

학생간부 중국연수

학생과(과정=선상규)는 '학생간

부 및 성적우수학생 중국연수'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7월) 5일까지 자매대학인 칭화대학과 연변대학에서 갖기 위해 각 단과대학장에게 학생추천을 요청했다.

선발기준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을 우선으로 각 단과별 1인으로 하고 간부지원자가 없을 시엔 전학기 성적 4.0이상인 2학년 이상의 학생이다.
추천기한은 오는 26일 까지이고 참가학생은 69명만을 부담해야 한다.

연구교류처 개편 신설 재단이사회에서 결정

제 132회 재단이사회가 지난 5월 30일 타워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작년도 결산과 인사에 대한 심의, 감사보고 등이 있었다. 특히 기구정관 변경이 있었는데 대학사무조직개편(안)을 살펴

보던 △연구교류처(연구부, 학술교류부)개편 신설 △공보부를 총장 직속기구인 공보실로 개편 △경주캠퍼스 교무처에 학술연구부 신설 △경주캠퍼스 학생처에 취업과 신설 등이다.

경주교수회, 부총장 선출 규정문제에 많은 논란 발생

경주교수회(회장=황순구·한문학)대의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총장 후보 선출'에 관해 지난 5월 31일 합동회의를 거쳐 단독 임후보한 박준학(행정학)교수를 무투표 선출, 다음달 6월1일자로 공고 및 총장에게 추천 상정했다.

지난 합동회의는 '단독임후보'라는 임후보 등록 결과로 인해 선거 무산과 동시에 개최되었다.
회의 안건은 임후보자에 대한 신임투표, 전면 재선, 무투표 선출등의 의견을 두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에 회의 결과는 개정된 규정 4장 제10조 2항 제1차 투표에서 다수 투표 순위에 따라서 3인을 선출하고 제2차 투표에서 다수 투표 순위에 따라 2인의 후보를 선출한다'는 규정에 근거, 복수선출이 되지 못하므로, 단독임후보는 선거규정에 위배된다하여 직접 투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대의원회 및 선거위는 이에 결의, 박준학 후보를 무투표 선출확정, 총장에게 추천한 상태이다.
이번 선출 결과의 과정을 정리하면, 교수회는 지난 1월15일 총장 선출, '부총장은 총장이 퇴임할시 간

여임기에 관계없이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부총장후보를 선출키위해 동계방학기간 중 두차례 임시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간담회중 모두 유해 돼, 이후 간담회를 열었고 부총장 직접선거 여부 및 부총장 선출 방식등 규정문제에 관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따라서 지난 4월12일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부총장 직접선거 및 임후보 방식 선출로 개정을 결정해 5월3일 개정, 확정 시행토록 했다.
또한 지난 동계방학중 갑작스럽게 부총장 선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학생회측과 직원노조 위원회(위원장=김종규·총무과 이하 직원노조)측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않고 있다.

한편 부총장 후보 선출과 함께, 경주교수회의 황순구(한문학)·배의용(철학)부회장, 서태양(관광경영학)총무는 "부총장 후보 선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교수회는 차기 회장단 선출 때까지 대의원회의 수석대표의 원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리수

종교와 정치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를 검증하고 공명선거를 치르자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믿는 종교와 연결시켜 후보자를 선택하자는 분위기가 각 지방마다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우리 정치는 분열과 반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선거권이 되면 노사간의 대립에서부터 지역감정이 되살아 나고 학연(學緣)과 지연(地緣) 등의 집단적 이해관계로 불협화음과 불협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정치인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음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종교간의 갈등 역시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날 어느 대권 후보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찬송가 소리가 그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타종교인들로부터 심한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부분은 곧바로 부인되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 특정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다. 거기다가 어느 일간지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임각했다고 자랑삼아 보도한 일도 있었다. 이것 역시 종교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교역자들이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나 강론을 통해 특정 정파나 후

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을 일삼는다면 이것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일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고유의 전통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다종교국가(多宗敎國家)이다. 그리고 종교로 인해 정치·사회적 분열도 별로 없었다. 다종교사회의 공존과 조화를 그랜드로 잘 지켰기 때문이다.
종교의 목적은 인간과 사회를 구원하는데 있다. 지금 종교인이 해야할 역할은 정치에 개입하거나 종교적 신념체계를 같이 하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일이나나 사회적 분열을 통합하고 화해와 일체감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그리고 진실한 종교인은 종파의 울안에 속박되지 않는다. 종파의 울안에 갇히게 되면 이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종파의 울안에 갇히게 되면 이웃을 발견하는 시력을 잃기 때문이다. 종교적 이집(執執)으로는 학교의 진수를 체현할 수 없다. 잡다한 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부처와 조사에 집착하면 자기를 잃기 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의적 인간이 되는 일이다. 종교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진정된 종교인도 사람도 되기 어렵다.

김정휴
불교신문사 사장

64교수동기회 1천3백만원 기부

김의락(화학64졸·계명대교수), 이동과(법학64졸·감정평가원 교수), 장명근(법학64졸) 전 법제처장등 64교수동기회(회장=성용길·화학) 13명의 교수는 지난 31일 학교발전기금으로 1천3백만원을 송총장에게 전달했다.
'64교수동기회는 본교 64년도 졸업생중 대학교수 40여명이 모여 조직된 친목단체로서 이번 발전기금을 1차분으로 계속적인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2백1명의 동문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동창회장의 취임식과 축하패증정등이 있었다.

황명수 송총장회장은 취임사에서 동국인 체육대회의 활성화와 재학생과의 관계 개선으로 동창회비를 원천적 해결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총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3억5천만원으로 설립된 동우장학회의 기금 10억모금을 목표로 하고 조속한 달성을 위해 전 동문 1인당 1구좌 개설과 1구좌당 1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황명수 송총장회장 취임

송총장회는 지난 2일 엠베서더

CREATIVITY CHALLENGE

학점의 천재들을 찾아라!
학교에는 없는 E학점, 그것은 끼와 특특이는 순발력!
광고 엘리트집단 금강기획이 E학점의 천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95 금강기획 대학생 광고캠프 기잉잉

모집요강

- 행사내용**
◆모집인원: 100명
◆참가자격: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캠프기간: 95년 7월 27일(목)~7월 29일(토) 2박 3일 합숙교육
◆장 소: 한려문화재단(경기도 용인군)
◆캠프내용: 광고실무 및 프리젠테이션 실습
◆참가비: 없음(숙식, 교통비, 교재 및 기념품 제공)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 간: 95년 6월 12일(월)~7월 7일(금) 09:00~17:00
(단, 우수사례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장 소: 110-450 서울 중로구 원남동 66-21 보령빌딩9층(종로4가 고려대세상점)
(주)금강기획 기획조정실 광고캠프팀(TEL. 708-2942)
- 전형방법 및 심사**
◆당사가 제시하는 공모과제를 제작하여 제출된 유효모집품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선발
◆심 사: 각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광고계의 권위자로 위촉함
나, 전체모집품에 대한 예심 및 본심을 실시
- 응모요령**
◆응모과제: 신청서 교부시 과제부여
◆부품 및 규격
-TV광고: 30초용 TV-CM 스토리보드(당사 소정양식, 10일 전라)
-신문광고: 8단x37cm 인쇄지 폭에 또는 길라
*공모작품의 경우 4명이내에 한함
◆공모작품은 작품일련번호 우드라나나 하드디스크를 부착하여 제출
- 발 표**: 1995년 7월 20일(목) 당사제시서 개명동지
- 기 타**
◆광고캠프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함
◆광고캠프를 수료한 자를 임하는 경우 시류전행과면접에서 특권을 부여함
◆광고캠프 우수 수료자에게는 시상 및 인사위원의 자격을 부여함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함

Creative Excellence
금강기획

지남호

동대신문을 읽고

교과과정개편 보도

공급증 해소

지남호 동대신문(제1177호)에는 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안이 실려 많은 학생들이 교과과정 개편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급증을 해소해 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차제 여러 대학의 개편안을 비교해 한국대학사회가 앞으로 다가올 대학시장 개방시대에 어떻게 대응해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한다.

학내 보도면엔 실린 '대중제의 상처'에 대한 사진 컷은 페인트로 인한 상처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 공감대를 얻기에 부족하게 느껴졌다. 컬러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열린글터에 실린 동국학우들의 목소리는 요즘 우리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의 성의있게 담고있는데 한가지 주제에 관한 다른시각을 지난 학우들의 의견도 실어보며 매호마다 방법적인 면에서 변화를 주었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사회·문화·학술 등에 걸쳐 체계적인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려 노력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는데 좀더 다양한 시각으로 관심있는 주제에 관해 다루어 나간다면 좀더 발전하는 동대신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정경훈 (공보실·본사모니터)

칼럼 장기화, 지루감

95년 1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 되고 있는 지금 동대신문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던 지남호(제1177호)였다. 안정되어가는 편집능력, 내용상의 다양한 소재, 부드러운 자리매김, 적절한 지면활용 등이 눈에 띄게 역력해 이제 막 쏟아지는 여름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그러나 고 정적인 칼럼과 기사가 양적으로 너무 확대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같은 내용의 기사와 칼럼이 너무 오래 정기간 계속돼 지루한 맛이 없지 않다. 이런 점은 자칫기자의 내러티브와 기사의 진부함을 부추킬 수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윤영미 (자연대 기교과·본사모니터)

열린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 280-3491, 2 (0561) 770-2057

동문회 모교방문행사를 다녀와서 '죽비'로 매리던 담임선생님 만나 제자에 대한 열정과 사랑느껴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느끼겠노라 다짐하며 정신없이 달려온 대학1년의 지난 시간들, 바쁘고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다분히 어리숙했던 여고시절이 자주 떠오르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다. 아마,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며 보내지 못한 여러가지 미련들과, 그리고 남몰래 하진 못했지만 순진하고 깨끗하게 그러지는 나의 친구들의 모습이 나를 그러한 감상에 젖어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찾아가자마자 간간히 걸려오는 친구들의 진화어는 선택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 없었다. 졸업 때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내 모습 때문에, 그리고 뭔가 뿌듯하고 자신있는 모습으로 정들었던 교정을 다시 밟고 싶다는 자존심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망설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동문회에서 모교 방문을 지원하는 행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그것이 큰 동기가 되었지만 나는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나가고 싶어하던 동문 친구들도 M.T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져가 되어 세명이었고, 기념품과 학교 홍보물을 손에 들고 교문앞에서 이야기하던 중

에 3학년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내가 제일 존경하고 따랐던 선생님이다. 유난히 말쑥하고 우는 친구들이 많았던 우리반을 맡으신 선생님은 늘 듣고 다니시는 '죽비'로 우리들의 손바닥과 엉덩이가 붙어 나오도록 때리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체벌에 대한 불만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이유는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이 충분히 피부에 와닿아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선생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난 후 나는 준비해간 기념품들을 조심스럽게 건네드리고 도망치듯이 교정을 빠져 나왔다. 선생님께서는 틀어져서 후배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자고 하셨지만 내 고집은 막무가내였다.

어쩔 수 없이 나를 휘어잡는 아쉬움과 애상을 뒤로하고, 다음엔 꼭 더 크고 넓어진 가슴으로 또한 참다운 지성인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어린 교정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 보았다.

권리나 (사범대 역교과)

'총동창회비' 환불결정후 언급없이 공약사항 여론조사 노력과 대조

벌써 95년의 6월이 왔다. 이제 곧 기말고사를 치를때고 그러면 1학기도 끝이다. 매년 그랬을지언, 올해는 그래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하는 학우 대중들의 기대가 적고 있다. 2학기가 되어 또 선거철이 되면 학우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각종 유세가 있을 것이다.

올해 4학년은 부당하게도 '동국을 위한 나의 마음 회비'라는 정성으로 라는 아주 그럴싸한 문구로 총동창회비를 내야 했다. 학기초에는 각 학과 4학년 과대표를 모아 회의를 자주 해서 환불을 받기로 잠정 결정을 내리더니, 지금 한학기까 끝나갈 때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그와 함께 거론된 사안인 졸업사건 영상앨범 제작에 대해서는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 사항 중 하나였기 때문인지, 여러차례 예쁜 조사를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꼭 공약사항이 아니었다 해도 학기초에 거론된 사안인데, 결과 어찌되었건 간에 중간중간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 뿐만 아니라, 행사가 끝난 후 녹야원을 보면 그 흔적이 미칠을 두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선거때와 비교해 보면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각종 홍보물 수거에 여념이 없다.

언제나 마무리 작업이란 참 중요하다. 어떤 큰 사안에만 주먹쥐고 일어서는 것보다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혜원 (인문대 철학과)

선거, 부르조아가 발명한 화려한 속임수 대중적 운동·실천적 투쟁으로 극복돼야

선거는 부르조아가 발명할 수 있었던 가장 화려한 속임수이다. 마치 한가지 경우의 수만을 숨겨두고 상대편으로 하여금 경우의 수에서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처럼 사치는 아바위꾼의 수법이 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것을 생산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을 향유할 수 있는 것, 다시말해 정치와 경제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것이다. 맑시즘을 암매하고 부르조아 체제안에서도 경쟁이 공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 들러리들의 대연합 이른바 진보진영의 악몽은 이러한 의기에서 아바위꾼에 토포를 걸어놓고 당점을 기다리는 너무나 거대한 착각일 뿐이다. 우리는 철저히 냉철해져야 한다. 우리가 준비하는 정치는 자본의 최대지분을 선거를 통해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닌 생산자와 통치자가 일치되어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부르조아에 의해 더럽혀진 정치라는 이름을 프롤레타리아 정치라 부르려고 한다. 선거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서 더욱더 선거가 대중과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과 대중의 정치적 진출이 없을 경우에만 그렇다. 따라서 선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아닌 방식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산자정치다. 생산자의 정치는 벌급정수에 분노하는 주민들의 집단적 시정행방문 속에 있으며, 임금억제에 맞서 파업을 단행하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있다. 따라서 이른바 선거시대는 선거가 아닌 대중적 운동으로 실천적 투쟁으로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명봉 (인문대 사회복지학과)

온방골의 너그러운(?)준법의식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모습에 경종

얼마전 교통범죄금과 경범죄벌칙금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다. 교통시설의 확충과 같은 그 근원적인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처사는 '국민들을 세금내는 봉오로만 생각하는가?'라는 비판과 질책을 사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높은 분(?)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서는 우리 온방골 학우들의 너그러운(?) 준법의식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성건동 일대에서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안전도 미작용, 또는 담배꽂조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다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당하는 학우들을 보게 되거나, 혹은 직접 그 당사자가 되어 범칙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우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느니, 아니면 일진이 사나워서 그랬다느니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물론 그런단속을 당하고도 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단순히 재수(일진)의 탓만으로 돌릴 수 있

겠는가, 혹은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알가알가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점이 바로 내가 꼭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문제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준칙들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 탓으로 돌리려는 건 자정 지성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 생각된다.

'참된 지성인'이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지식에게로 다가가는 것이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서 모든 일에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현재의 우리 모습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온방골 학우여러분! 부디 참된 지성인으로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변종민 (법정대 행정학과)

잠깐 후속

"안녕하세요... 무역학과 권오인입니다... 신문부나 투고란에 독자의 이야기를 마이클로도 받고 하길래 편지도립니다. 양은 어느정도며 주제는 따로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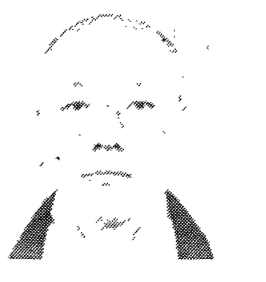
본지는 6월1일부터 하이텔 동국대통신동호회(DGU)의 10번이나 신문사 ID(dgpress.dku90)를 통해 독자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제보, 기타 의견 등을 받고 있다.

DGU의 경우 GO DGU로 직접 동국대통신동호회에 접속후 10번 방으로 가서 W(쓰기)명령을 이용, 신문사 ID를 이용한 경우 GO MAIL로 가서 2번 관리자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DGU의 경우 글 제목을 [동대신문/투고] 등의 형태로 해 주시고, 열린글터, 동아광장, 아이텔제공, 모니터 등 글의 성격을 상단에 표시해 주십시오.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방학중에도 학내소식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 하이텔 동국대통신동호회(DGU)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편집자)

동/문/칼/럼

목errick산 기슭의 좋은 인연들

우리 동국학원은 불조의 해명을 이어받아 설립된 종합대학이다. 나는 그곳에서 수학을 한 인연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오랫동안 불교 집안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지금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더욱 그러한 인연이 소중하기도 모른다.



김래동 (법문포교원장·법70졸)

하긴 삶에 있어서 인연을 재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인연에 의해서이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택하게 된 것도 인연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살아온 운명까지 하는 도반들도 다 인연의 소치인 것이다. 명예이래 이 세상을 등지고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도 또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확실히 보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어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연히 잘못이나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연인 것이다. 아니면 이것을 무엇이라 달리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있다면 인연이 아니라 해두자. 모두가 한가지 생각으로 통일된다는 발상 자체가 조금은 위험한지도 모르니,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부분이 아니던가.

하여간 나는 동국의 울타리에서 만난건 교수님, 선배, 그리고 후배 모두를 인연의 결과라고 믿는다. 그것도 나쁜 인연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인연이었다고 굳게 믿는다.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

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나는 종교관계 일로 사회와 격리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참 착하고 선량하기만 한 사람인데 한순간의 잘못된 인연으로 인생서 영영의 토포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물론 가릴 의복 및 밥과 비를 피할 지붕 조금, 그리고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약간이면 족한 것이다. 이 몸이 금침을 하고 하루에 열거를 먹는다고 행복할 것인가. 또 조금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해도 그것이 몇 백년의 기와 속에 남을 것인가. 조금은 공평해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 안을 얻고 남에게 베풀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고 있는지도 주위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우리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동국의 학우는 모두 이런 사람이 되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래동 (법문포교원장·법70졸)

목errick골

축하합니다

■동료, 기교, 기영, 미희, 여일 수습환영식을 무사히 끝마칠을 축하드립니다. 동대신문의 주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 위 5명을 제외한 수습기자 일동

■이쁜이(정미)의 10기 손·사 수료식에 가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려부러요. - 국문과 미남 패거리

■은수와 현영이의 데뷔 칼럼을 진짜 축하한다. - TIME

■동국대 검도부, 서울시 춘계 대학연맹전 여자단체전 우승을 축하합니다. 동대 검도부 fighting. - 불교학생회 94

■1974년 6월 3일 김정민 태어나다. 그의 탄생은 우리의 비극이었다지만 우리 그를 사랑한다. 생일 축하해 정민이영. - 세기말의 꿈

수고하셨습니다

■6일 새벽 일문회원 기습시위를 벌였던 자랑스런 동국대 학우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기를 다잡는 길에 끝까지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 사범대 모여라 골동신이

■졸업한 선배님들과 재학생 선배님들! 이번 일문과 체육대회를 무사히 치르시라 수고하셨습니다. - 시원한 사회자 d-d

■한중학같은 극장에서 땀흘려 연기한 국문과 희극분과 여러분! 열정 수고하셨습니다! - 제 9대 국장

■A·D Rush 일일 HOF에 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해준 A·D인들, 너무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 브이네스

■전 그리고 팔십, 어슬렁어슬렁 존재를 고민해본 이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정 힘내십시오. - 불교학생회 94

■제체실습때문에 한학기 동안 고생하신 김·공 3학년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 LSI

■관객모독을 준비했던, 그래서 무사히 마친 극회 후배들에게 사랑

축하합니다

■대의원 총회 준비하신 총대가 축하를 받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코 무디지 않은 사정의 캄바람으로 끝까지 남으세요. - 밝음이

■6·3청년학생대회 선전을 준비해준 95학번 공대학우를 수고했어요. - 덕·사·모

■통계조사 연구회 기타를 습득하신 분은 통계조사 연구회 동아리 방향으로 연락하십시오.(뒷면에 '기중:서훈식'이 써있음)

■동대아마추어야구회(L·A·E)가 4강에 올랐대요. 이겨서 결승에 올라가자! - 신남55 월화가

■경주캠이 서울캠에서 고하노니, 우리 통일투쟁 더 열심히 합시다. - 통일외화방송 제6기 위원회

■286, 386 컴퓨터 중고 삽니다. - 582-9189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6월9일 교육학과 재학생 체육대회에 다같이 참여합니다. - Miss교육

■동국인을 대상으로 SKIN-SCUBA강습회를 해요. 7월 3일부터 12일까지고요. 9시30분부터 12시까지요. 수영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해요. - 도서관지하수조림연구회

■그리고... ■수로행! 열심히 공부하여 자랑스런 연영과 대학원 건어가 되십시오. 파이팅! - 멋있는 수습기자들

■약조속속에서도 모든 것을 웃기 이겨낸 신방과 학우들, 우리가 보낸 1학기 보다는 앞으로 7학기들 생각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 신남55 월화가

■역시 동대는 '고전미+현대의 역동성'이 느껴져다군요. - 동대의 축제를 보고간 他大生

■유럽여행 같이 가실분을 찾습니다. - 식물지원학과 94학번 도연

온방골

축하합니다

■용대야! 생일 축하한다. 6월 6일 현충일날 제 친구 용태의 생일 날 이거든요. 사·복을 비롯한 모든 동국인들 축하해 주세요. - 너의 C-L로부터

■6월 8일은 친구 화승이의 생일입니다. 많이 많이 기뻐해주세요. I LOVE YOU. - 누구게

■수향이의 22번째 생일을 축하! 많이 소울했지 미안. - 너의 단짜

■경이아, 네 20번째 생일(6/5)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친구 모두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 중문 94 同學

축하합니다

■경영(아)농구부 CRUSH 우승을 축하하며 - 90 용진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2학기 과대 민성기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 95 후배일동

■6월 6일 사·복과 김진희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불휘인 모두가

■6월 8일 5시30분 문무관에서 동국음악회 춘계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 동·음15기 포코이

■6월 15일 목요일 5시 30분 소강당에서 Seven-Glass 공연이 있습니다. 창작곡 및 컴퓨터 음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입장료 100원. - S-G

■6월 8일 사·복 종강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95

■6월 8일 5시30분 문무관에서 동국음악회 춘계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 동·음15기 포코이

■6월 15일 목요일 5시 30분 소강당에서 Seven-Glass 공연이 있습니다. 창작곡 및 컴퓨터 음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입장료 100원. - S-G

■6월 8일 사·복 종강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95

■6월 8일 5시30분 문무관에서 동국음악회 춘계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 동·음15기 포코이

■6월 15일 목요일 5시 30분 소강당에서 Seven-Glass 공연이 있습니다. 창작곡 및 컴퓨터 음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입장료 100원. - S-G

■6월 8일 사·복 종강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95

■6월 8일 5시30분 문무관에서 동국음악회 춘계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 동·음15기 포코이

축하합니다

■정민, 혜영, 은화야! 그리고 기교가 모두를 시험 잘치고 우리 한번 멋지게 종강파티 해요. - 누구

■경제학과 1학년 아그들이 시험 잘쳐라. - 묵

■대지불인이어 다시 한번 동쳐됩니다. 분열된 모습은 싫어요. - 대자불 10기가

■총김영, 만선이 나랑 같은 방 쓴다고 했었지요. 앞으로 더 잘치내요. 그리고 광호야 근대 잘 다녀오너라. - 세진

■거침없 회원 여러분 방학을 뜻 있게 보내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2학기때 만났사이다이 - 회장

■1학기 동안 DK·B·S는 학우여러분의 많은 성원속에서 방송은 물론 각종 다양한 행사를 성공리에 치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방송장

■말리 있는 상희, 말봉, 지선, 정아, 정미야 너무 보고싶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좋아하는지 알지? 사랑해. - 여인

■불휘인들 끝까지 힘차게 두들겨 봅시다!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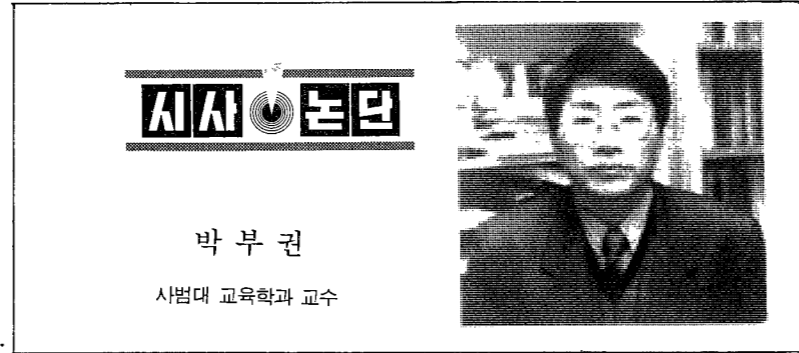
새로운 교육개혁안 문제와 과제

재정투자 청사진·구체적 실행 방안 필요

지난 5월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그간의 논의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였다. 이번의 교육개혁방안은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예컨대 입시위주의 단편적인 지식교육, 인간성의 배물, 개성의 무시, 낮은 교육투자, 불평등한 교육의 질, 지속적인 수요과잉으로 타성화된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의 무사안일 등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의 핵심은 제안된 개혁방안들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소비자 주권'의식과 '결정'이다.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앞으로 예정되는 공급과잉을 생각할 때 이는 분명 실용적이기는 발상이다.

그러나 교육서비스는 텔레비전세트나 냉장고와는 다르다. 이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근한 예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선호한다고 할 때 서울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대학의 프로그램보다 반드시 우수하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용어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경제적인 생산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가 대학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것은 학력(學力)보다는 학력(學歷)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교육 서비스는 우리 몸의 장신구처럼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사치품일 수 있으며, 요즈음 일본에서 거론되고 있는 '학력(學力)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개혁위원회"의 대학개혁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설립인가제로부터 준칙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공공립대학은 1997년부터



박부연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터 학생들을 선발할 때 "종합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사용하게 한 점이다. 대학모형의 다양화, 특성화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고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대학들이 기립교 달성해야 할 과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 동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들이 종합대학이고, 종합대학에 속해 있는 문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예술대학, 사범대학 등이 지금까지는 동일한 학사규정에 의하여 통제되어 온 터여서 종합대학 전체를 특성화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종합대학 내의 단과대학들을 특성화하는 일도 그로 인한 대학내부의 마찰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민족사관 특성화를 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설립인가제"로부터 준칙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기존대학의 설립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의 "대학설립기준법"은 폐기되고, 준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마음대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대학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의 당연한 귀결로 일정기간 내에 준칙주의에 의한 새로운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내에 준칙주의에 의한 새로운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학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준칙주의의 도입원칙으로서 "학교설립기준은 모든 학교가 충족시켜야 할 최소기준에 불과하며, 학교가 추구해야 할 질적 개선의 목표는 평가 기구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예견되는 우리는 현재 대학설립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도 각 대학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소한의 기준만 놓고 나머지는 대학이 스스로 충족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학의 필수전형자료로서 "종합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점도 현재의 인문고등교육과 입시위주, 지식위주교육에서 탈피하여 보다 질 높은 능력교육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인성, 덕성교육을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되어 원칙적인 방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기업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 기술의 자체개발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방향설정만으로 기술의

자체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연구인력의 확보, 기술투자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종합생활기록부" 도입만으로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이 목적하는 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학교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종합생활기록부"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교과목의 성취수준과 석차,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특별활동, 단체활동, 봉사활동, 성적 및 품성 등을 자세하게 평가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교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한 교사가 수백명의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목 교사들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제대로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종합생활기록부" 작성은 몇몇 고등학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아 전체등학교에 확산하고 그것이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몇몇 대학에 그 도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 결과를 보아 다른 대학에도 권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사전시행에 위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라야 할 교육개혁위원회의 본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번 교육개혁안이 제시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그 개혁방안은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투자의 청사진이 없다. 물론 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번의 대통령 보고는 일종의 중간보고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교육개혁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해 본다.

사설

진정한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31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일단 그 기본이념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개혁안이 '열린교육', '평생학습 기회제공', '학습자중심', '다양화·정교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점은 대체적인 공감을 얻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안의 한계를 드러내놓고 볼 수 있다.

첫째로 교육개혁안 수립에 있어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지고 발표되는 과정이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이는 교육당사자들의 반발을 일으킬 소지를 지닌다.

김영삼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을 자처하며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5%확보'를 공언한바 있으나 그 실현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새 교육개혁방안은 교육환경의 개선이라는 교육제도 개혁이 의미가 없으며 그러한 개선은 재정이 확보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봤을때 이번 '교육재정 GNP 5%확보'의 9월 연기는 실패감을 주고 있다. '교육재정, GNP 5% 확보'는 고개위 스로라도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주장을 했듯이 교육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재정경제원의 'GNP 대비 5%의 교육재정 산정에 국공립대의 공납금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고개위의 보고는 단지 건의에 불과하다는 발표는 교육재정 마련에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부처간의 이견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정부는 재정확보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시험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종합생활기록부'제도는 우리의 학교현장의 교육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학급당 50명 이상인 과밀학급으로 성실한 평가와 기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러한 제도는 교사들에게 연구보다 또다른 잡무를 안겨주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교육정책에서, 특히 입시제도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제도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이번 교육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누구나 공감하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에 관해 거의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교원자격검정령제도 개선에 일관된 구도 없으며 교원임용고시에 관해서도 주관식 출제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비효율적인 학제의 개혁, 비민주적이고 관련된 교육행정체계의 개혁, 완전한 교육자치제 실시 방안, 또한 논란이 되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부의 시급한 후속조치로 처음의 기본이념을 실현해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편 감사실시 논란

교편 위상정립...공개·검증필요

지난 18일 총대의원회 중앙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감사실시를 포함한 4개항 일차적 '동국'교직원위원회(이하 교편)에서 부인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교편측은 "논란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총대는 "그자리에 교직원위원이 참석, 원칙에 일단 합의하고 그속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것"임을 밝히고 있다.

8차중앙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원칙은 △교직원위원회의는 기존의 학생자치기구와는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

변하는 학생자치기구로 존립되어야 한다. △재정은 기존의 방식인 학생 경비로 충당한다. △편입권은 철저하게 보장받도록 회칙에 규정한다. △감사는 총학생회최상 최고 감사기구인 총대의원회가 실시한다 등 4개항이다. 총대는 일단 4개항을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8월 중앙위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편측에 따르면 "총장의 위촉을 받은 지도교수가 편입위원회의의 여산, 예산감사·집행, 인사등 제반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해 온 총장직속기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대는 "학생경비에 의해서 예

산이 책정되고 운영되는 학생자치기구이므로 학생자치 회칙에 근거한 총대의원회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교편과 총대의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학교당국의 입장은 "몇사람이 합의한다고 기구편제가 되는것은 아니며 현재 교편은 총장직속기구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위상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국'교지는 학교를 대표하는 교지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교편은 '학교와 총학생회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구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교편의 지도교수인 김진철(정치외교)교수는 "교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연하(역교)교지편집장은 "자체감사를 통해 총대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효성

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총대 감사국장 김방욱(야간강좌 영문4)군은 "학우들에게 객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교수제는 80년대 학생운동단위의 도구로 이용되어 온 것인데 감사거부이유로 이를 운운하는것은 학교당국의 간섭을 초래할 우려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경주캠퍼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시립'교편위원회의는 예산감사만 실시하고 사업감사는 거부하는 입장이다. '시립'측은 "사업감사는 학생회가 언론기구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총대는 "편입권에 대한 감사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위한 논의는 계속될 듯하다.

사실 현재 교편감사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도 미흡한 상태로 다른 자치기구와 차별화된 감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대는

"편입권은 일단 학우만이 간여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학우들에 의해서만 그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번의 총대와 교편간의 문제는 자칫 정교간의 문제로 비춰질 조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경비로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편의 운영이 울바로 공개되지 못하고 학생들과 의견수렴의 통로 또한 부실했던 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교편 또한 나름대로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하 나 진정한 '교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의 논란을 계기로 활발한 여론수렴을 거친 토론과 합의의 통해 불확실한 상태인 교편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소영기자)

중국만평

이열일

한 통

이 열 일

一舉雙得

저가 레이저프린터! DOS환경에서 인쇄가 잘 안되시죠?
쌍용레이저아트! 윈도우 GDI환경은 물론 DOS 환경에서도 빠르고, 선명한 저가 레이저프린터입니다.

R5 신개념 도입

- R1 Real GDI (Graphics Device Interface) Windows환경에서도 1분에 6장 출력 (고속 이레이터판 드라이버 제공)
- R2 Real 600dpi 600dpi의 선명출력 (600DPI 이레이터판 드라이버 제공)
- R3 Real Generalization 모든 PC와 프로그램에서 완벽한 출력 (KS, HP-IP, KSSM, QNIX 등 8종의 에뮬레이션)
- R4 Real AES (Auto Emulation Select)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동변환 출력
- R5 Real PRICE LaserArt I : 685,000원 LaserArt II : 850,000원 Macintosh Option Kit : 200,000원

쌍용컴퓨터 고객지원센터 위치도

쌍용컴퓨터 고객지원센터 (☎ 707-2733-4)

전지랜드	10등	조양상가	19등
이랜드	12등	조양상가	21등
도	주차량	21등	신안상가

☎ 소비자상담실 (☎ 지능망서비스) 080-900-8272 (빨리처리)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아트

세계 일류 종합정보기업을 추구하는

쌍용컴퓨터

총판점 서울 (주)소프트빌 706-9691 광주 로즈컴퓨터 234-2345 고척지원센터 서울:271-0023 부산:646-1695/6 대구:254-5559/2 대전:962-5891 광주:224-4231 수원:81-8945 동해:34-8171 (교한:378)

지역대리점 서울:이브로인 717-2825 (주)중앙시스템 713-2477 (주)대성시스템 711-0558 (주)경시시스템 711-1050 (주)프린트프라이드 704-0333 (주)신안컴퓨터 714-7935 (주)비트시스템 844-5581 (주)소프트빌 704-4277 (주)도달정보시스템 408-6348 (주)신안컴퓨터 718-2192

경기도:광명:영보컴퓨터 655-4811 (주)쌍부 시스템즈 871-4326 수원:이시영 215-8345 (주)인원 시스템즈 438-6422 (주)동문출판(주출) (주)동진에이 02-775-7404

서울시장 입후보자 인터뷰

본사에서는 지자체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5월31일과 6월1일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자 인터뷰를 실습니다. 박찬중씨 조순씨는 직접 인터뷰를, 정원식씨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대학과 관련지어 교육전반에 관한 문제와 시장개방에 따른 대학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사는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 서울지부의 공동기자단에서 작성했습니다. (편집자)

정원식(민자당)후보

개방, 대학행정·학문수준 향상에 기여 시대 바뀌어도 인성교육 중심되어야

① 교육은 궁극적으로 참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육은 인성교육 중심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육은 그 상황에 따라 분명한 목표를 지녀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교육과 우리의 교육이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교육담당자, 그리고 피교육자 모두가 교육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② 결과야 어떻든 당시 정책결정자로서 매우 가슴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1천4백90명의 해직교사들 중 현재 90.1%가 복직된 상태이다. 미복직자 1백48명은 아직 전교조에 남아있거나 변절에 불응한 경우, 또 아예 복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결국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사실상 해결되었고도 생각된다. 또한 합법화에 대한 문제가 있어 현재 전교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적 여건은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③ 우리의 대학들도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대학행정 및 학문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시장 개방은 그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국제적인 여건상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엘리트위주라고 일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각 대학에 대한 지원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

④ 연구개발 투자의 획기적인 증대는 필연이다. 사립대 운영비의 10%(94천억원)까지 국고보조를 늘려야 한다. 또한 산



학협동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에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은 대학인만의 것일 수 없다.

⑤ 바람직한 일이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도시기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전한 대학은 지역중심의 종합정보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전문제는 행정당국이 주관을 맡아야 한다. 또 그에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이전을 결정한다면 시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⑥ 각급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기르려 개혁의 대체적인 방향을 높이 평가한다. 학생들의 학업능력 평가를 지금까지 상대평가에서 상취기준평가로 바꾼 것도 잘한 일이다. 이제 나서는 문제는 그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은 물론이요 객관성을 담보할 전문인력 확보,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 순(민주당)후보

개방 회피 아닌 장기대비책 마련해야 정보화시대 걸맞은 교육목표 설정해야

① 어떠한 인간상을 목표로 키우느냐 하는 것이 교육철학이다. 지난날의 교육은 경제개발이 요구하는 능률과 효율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1세기는 정보화시대, 문화의 시대라 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이에 걸맞게 개편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루빨리 21세기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전교조의 일부 간부급과 일부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직되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당교사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옹졸한 것이다. 일부 복직을 거부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선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복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조결성은 단순히 외국 의 사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국민 일반의 정서를 가지고 가야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운동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이 참교육 운동이 국민들에게 일정정도 호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합법화 문제가 해결되리라 본다.

③ 시장개방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교육에는 국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개방을 기능주의 관점에서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다. 다만 산업의 전반적 추세를 보아 개방을 회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에 대비해야 한다. 직업 교육과 엘리트 교육을 구분하고 각 부문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한다.

④ 현 정부의 교육재정 GNP5%의 방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급작스런 재정을



팽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고 점차 늘려야 한다. 이 상황에서 산학 협동을 통한 하드웨어 확충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연구에 대한 지원은 보장돼야 한다.

⑤ 이전은 바람직한 일이다. 도심의 밀집화로 초래되는 문제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서울의 대학들은 지방의 대학들보다 우선 순위가 높고 있다. 대학재단이 적자인 이전 투입금을 대학 재정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비난할 일도 못된다. 다만 그 과정이 대학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⑥ 그 자세한 내용을 아직 살펴볼 수 없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자율화의 대원칙으로 나가돼 그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박찬중(무소속)후보

시립대 경쟁력 갖춘 대학으로 발전시킬터 전인적 인간 양성 위한 교육 이뤄져야

① 지금까지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개선의 열정이 발휘되기 보다는 대응요법에 치우친 기능주의적 발상들이 난무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전인적 인간의 양성을 위한 인간교육,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특정분야의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나 교육의 핵심은 가능한 양성이 아닌 한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간이라는 점을 절대로 할 때 우리의 교육은 잠재된 인간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기본적으로 교육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문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교조에 관한 서울시장의 권한은 매우 작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법에 의해 불법화되어 있는 전교조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다.

③ 준비없는 개방은 더디게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시립대를 국가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며 이를 위해 첨단과학분야와 의료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기관이나 기업들과의 협동체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④ 지금까지는 서울시는 시장이 바뀌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 따라 무계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첨단도시로 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대학과의 산학협동체제를 통해 이뤄갈 것



이다.

⑤ 대학자들의 대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이전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위적으로 개입해서는 곤란할 수도만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도만 대학 정원규제들이 실패한 것도 대학 재정차원에서 넓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당국의 자체적인 재정능력 향상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⑥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가양향 개혁안을 제시했고, 대체로 좋은 냉이어서 많은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종합생활기록부 등은 일단 교사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수준에서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희오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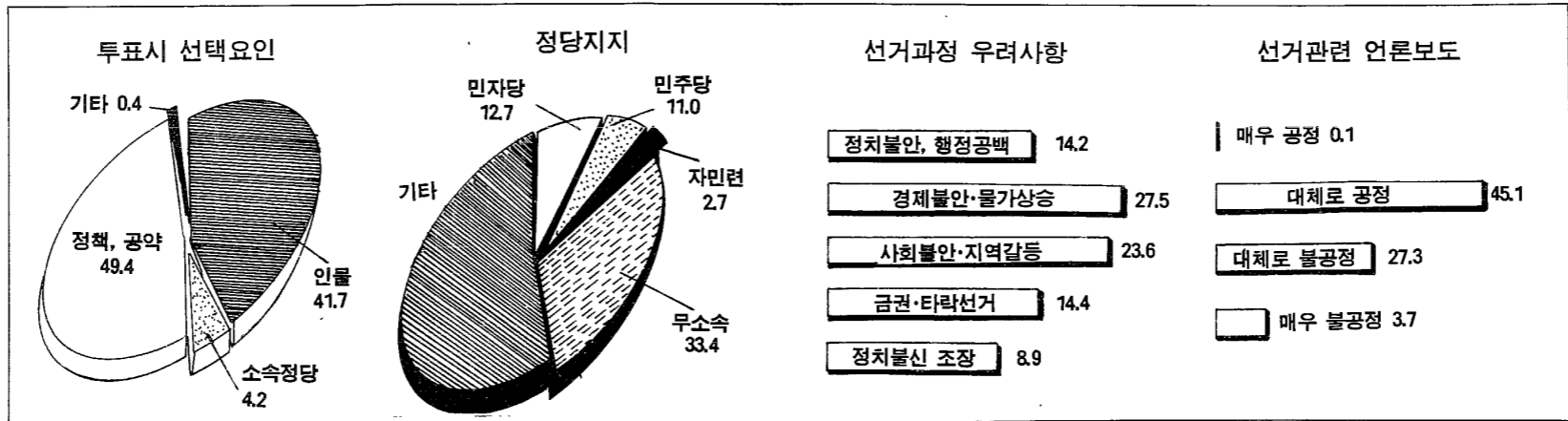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는 1995년 학과장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6월27일의 지방자치체 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본교생들의 관심 및 정치적 의식향상을 조사하였다. 이 여론조사는 경주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생은 7백2명으로서, 학년별로는 1학년 1백87명, 2학년 1백68명, 3학년 1백81명, 4학년 1백54명(외과대학) 5-6학년 및 불명 36명이다. 이를 연령별로 나누면 20세 미만 1백95명, 20-24세 4백2명, 24-29세 93명, 30세 이상 6명, 불명 30명이다. 또한 성별로 나누면 남학생 4백6명, 여학생 3백5명, 불명 15명이다.

2. 정치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의사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지방자치체 선거 실시일이 언제이며 이 날 몇 가지 직책에 대하여 투표하느냐가 아가여 부를 물어 측정하였다. 선거 실시일이 6월 27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7.6%였으며, 4가지 직책을 동시에 뽑는다는 사실은 24.9%의 응답자만 알고 있었다.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6.27 지방선거" 혹은 "4대 동시선거"라는 어구나 문구가 거의 매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명중 1명의 학생만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소위 "신세대 학생" 혹은 "90년대 학번"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대학별로 분류하면, 법정대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39.5%로 가장 높은 반면, 불교대 학생들의 관심도가 1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18.8%, 2학년 21.1%, 3학년 22.0%, 4학년 42.5%로 고학년일수록 정치적 관심도가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학생들이 31.7%로 19.7%인 여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정치적 관심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치적 관심도에 비하여 투표 참여의사는 높았다. 이번 선거에 투표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투표권을 가진 20세 이상의 응답자중에서 35.3%가 "반드시 하겠다", 26.7%가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답하여 전체의 62.0%가 투표할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16.0%가 "하지 않겠다"(5.5%)거나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10.5%)고 투표 불참 의사를 나타냈으며, 22%가 "아직 미정이다"고 대답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대학신문이 지난 4월 23-5월 2

설문-지자체 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세대 학생, 현실인식·비판정신 부족 드러나 선거일 인식도 27.6% · 62.0%선거 참여의사 밝혀



일 전국 21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5%가 투표할 것이며 14.2%가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거의 90% 안팎의 응답자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최근 몇 년 주요 일간지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학생들의 투표 참여 의사가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분류하면, 법정대 학생들이 81.6%로 가장 높은 투표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의과대 학생들이 41.9%로 가장 낮은 참여도를 드러냈다. 한편, 한의과대 학생들중에서는 58.8%가 투표할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의과대 학생들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약 3년이나 끌어온 한, 약분정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생각한다. 학년별로는 고학년일수록,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성별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투표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정치적 관심도와 참여도를 고차 분석한 결과 선거 실시일을 알거나 4가지 직책을 동시에 뽑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의 투표 참여 의사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높았다.

3. 투표시 선택기준 및 정당별 지지도
투표시 결정 요인으로 응답자의 49.4%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41.7%가 인품을 꼽은 반면, 4.2%만이 소속정당을 들었다. 인품을 평가하는 데는 도덕성(60.6%)과 경력(29.7%)을 압도적으로 앞세웠으며, 학력(1.6%)이나 혈연, 지연, 학연(0.7%) 등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투표할 때까지 여러 후보들의 도덕성을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학생들이 실제 투표시 후보들의 경력을 가장 크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의 자질이나 경력과 관련해서는 정관이나 도지사 혹은 시장 출신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3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업가 혹은 경영자 출신이 13.5%, 학자 혹은 대학교수 출신이 11.9%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국회의원의 출신은 정당인 출신은 9.8%의 학생들만 선호함으로써, 지방자치체 선거는 "정치꾼"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라는 정부, 여당 및 언론의 홍보가 주요한 듯하다.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물음에 민자당은 12.7%, 민주당은 11.0%, 자민련은 2.7%의 지지를 받았으며, 기존 정당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나 불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33.4%의 응답자가 무소속후보에게 투표할 계획이며, 31%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다음의 설문에서도 확인되었다. 현 정부의 공과가 있다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이 많으므로 야당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21.5%)는 의견보다 "여야

간에 잘한 일이 없으므로 무소속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29.2%)거나 "모르겠다"(25.8%)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이다.

4. 중간평가 간주여부
현재 정부, 여당과 야당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간평가 간주여부에 대해서는 2가지 설문을 마련하였다. 현 정부의 공과가 있다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물음에, 이번 선거의 결과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첫번째 설문에는 15.5%가 "정부의 공과와 지방자치체 선거는 전혀, 관계없다"고 대답하였으나 58.6%가 정부의 공과를 투표시 선택기준과 연결할 뜻을 시사하였다. 두번째 설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니다"가 20.3%, "그렇다"가 64.0%, "모르겠다"가 15.6%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약 60%의 학생들이 이번 선거를 중간평가로 간주하는 한편 약 20%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두 설문을 교차하여 2차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수 학생들의 대답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두 설문 내용의 사이에는 투표결과 투표후보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공과와 지방자치체 선거는 전혀 관계없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서도 41.7%만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중간평가로 간주할 수 없다는 '부동의' 견해를 표명한 반면, 비슷한 수치인 40.7%가 중간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공정성에 대하여 낙관하는 학생들은 23.3%나 되었다. 아직까지 약 한달전 발생한 대구 가스폭발사건의 '축소보도'와 요즈음의 노동문제에 관한 '면과보도'가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적지 않은 말썽이 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학생들의 언론관은 "신세대 학생"들의 현실인식이나 비판정신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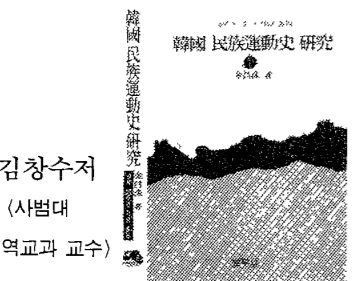
6. 지방자치체 선거의 문제점과 전망
후보나 당선자가 소속정당을 바꾸는 점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따른 다른 의견이 나왔다. 먼저, 공권과 관련하여 후보가 되기 위해 소속정당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무방하다"는 의견이 8.4%, "정치신념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4.1%였다. 그러나, 당선된후 소속정당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25.3%가 "일단 잘하면 되므로 무방하다"고 답한 반면 57.6%가 "투표자들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가므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답하였다.

선거과정에서 "가장"우려되는 사항으로 경제불안이나 물가상승(27.5%), 사회불안이나 지역갈등의 심화(23.6%), 금리 혹은 타락선거(14.4%), 그리고 정치불안이나 행정공백(14.2%)등을 예상하였다. 선거 이후 지방자치체도 정적에 대한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응답자의 13.9%가 잘 시되리라고 예상한 반면 76.2%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7. 정치제도 및 정치개혁
현재 정가 일각에서 '예상'하고 있는 선거 이후 헌법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두가지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응답자의 55.5%가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였으며, 내각제 인제와 의원집중제제는 각각 21.9%와 4.2%의 지지를 받았다. 둘째, 현행 대통령중심제가 존속한다면 대통령의 임기로는 5년 단임(58.0%)이 7년 단임(4.8%)이나 4년 중임(27.2%)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음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이 헌법개정이나 정치제도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3가지만 써달라는 주준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성격상 전산처리 및 계량화에서 제외하였다. 대략 분석해 본 바로는 정치인들의 도덕성 회복 및 세태교체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 및 정경유착구조 타파, 그리고 지역감정과 당파주의 극복 등이 거론되었다.

책서평



한국의 민족운동사 연구

이기동

(문과대 사학과 교수)

30여년전만 해도 한국 근현대사는 학문상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 1894년의 동학혁명운동(갑오농민 전쟁) 및 갑오개혁추진 과정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매우 보수적인 학문 풍토가 학계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급속한 진척을 보여 오늘날에는 한국사의 어떤 시대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본서의 저자인 김교수는 출판 선두에서 서사역사학의 근·현대사 연구를 지도, 개척해 왔다. 김교수는 이 시대를 크게 한말과 일제시대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민족의식의 성장과 민족주의의 전개라는 이분적 틀속에서 정립하려고 고심했다. 김교수는 8년간에 걸친 '한국근대의 민족의식연구'에서 한말의 보수적 재야지식인으로 부터 개화파 지식인, 민족적 지식인 등 각각양파의 지식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추적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본서는 그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제 통치시대 민족운동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한말·일제시대 민족주의의 형성문제에서 시작하여 의열단, 한민애국단 등의 항일의 열투쟁, 고려혁명당, 한국광복군 등 민족운동단체, 그리고 항일 광복군 등 민족 운동단체, 그리고 항일 민족운동 연구사 개관등 다방면에서 민족운동의 실상을 파헤쳤다. 특히 본서에 수록된 '근대불교계의 개혁운동'이라는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 민족운동'은 개혁과 저항의 시기에 조응하여 한국 불교계가 취한 대응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근·현대사 연구에서는 이태올로기의 현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독립운동사를 '후관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후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세력이 주체가 되어 이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근·현대사의 기본과제가 종속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독립운동이 되어야 한다는데 반대한다. 이처럼 작금 근·현대사연구에 있어서는 방향설정문제를 둘러싸고 이상기류의 검색이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때에, 근·현대사 연구에서 실증성과 아울러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는 본서 출간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생각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스님 방북의의

불교문화사상 바탕으로 점진적 개방해야

'민족 대방생 법회 실시'등 불교계에서 할 7개 항목제시

조용길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남북한의 한반도의 단절이 어언 반세기 가까이 되어 간다. 한반도의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연결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처럼 답을 쌓고 서로 적이나 다름없는 대치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단일 민족으로서의 공통성이 있고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으나 너무나 멀고 먼 이념과 같은 단절의 반세기기를 맞이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반도의 북은 패색적인 전근대적 방식이 난무하고 반도의 남쪽은 물질적 쾌락주의에 내세는 줄 모른다면 양쪽의 문제가 너무나 크다. 민족정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화와 문화의 개방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경을 방문한 바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은 7월경에 공식적으로 북한 방문길에 오른다. 여타 각종교집단도 그 나름대로 대북문화의 길을 열고 있으나 너무나 지엽적이고 분파적이고 집단적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장래 국가대 통일을 위해서는 격정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에서의 대북접촉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대표가 마련되어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의 역사, 불교의 문화와 사상이 반만년 역사속에서 끼친 영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남, 북한이 가장 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도 불교 문화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남, 북한 교역적 탐방, 관광 자원활용을 통한 점진적인 개방화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너무 급속한 정치, 정당적, 종교적 인기에 연연하는 것은 먼 훗날의 한낱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쪽의 문화적 및 민족문화 유산 자료목록의 상호 교환을 통한 순수 교류와 양쪽 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사상, 문화에 대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구려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북한은 고구려의 반도에서의 불교 문화 유산 정리를 통해서 남한에게 상세하게 공개시켜 주어야하고 남한은 북한에게 백제, 가야,

신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북한은 이질성의 원천이 소련과 중공 위주의 공산주의의 유물적 폐쇄성에 진하게 물들어 있고 남한은 자유 분방의 망국적인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이질성을 치유하여야만 한다. 김일성 사후의 북한은 통일 집안인 무주공산적인 상태이고 그를 바라본 남한은 환상적인 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불교계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남, 북한 정통 장본인 무명 용사까지의 전장에서 죽은 동족을 위한 민족적 대방생 법회 개최를 여는 것이다. 예나하면 일한 맺어 죽은 일흔들을 위로 하는 데에서 부터 상호 신뢰를 쌓고 불신의 벽을 허물어 공존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판문점 공동구역안이나 서울, 평양 상호 방문에서의 일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다운 일은 지난날 죽어간 영령들을 위로하는 길에서부터이다.

예로부터 효를 중요시한 백의 민족의 본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둘째는 불교의 식의 남북한 공동 모색을 통한 단일 의식의 통일이다. 비록 휴전선 사이에 두고

있고 하더라도 의식 집전 통일안을 중심으로 상호 이심전심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셋째는 금강산 묘향산의 큰 사찰과 서울, 경주, 부여, 공주 등의 큰사찰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 방문의 일이다. 여기에는 사부대중이라는 비구, 비구니, 남신도, 여신도 내지는 관광객도 가능하다. 넷째는 불교학자들을 통한 세미나 개최의 일이다. 다섯째는 잃어버리고 빼앗긴 문화재의 공동조사와 되찾기 운동이다.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빠져나간 불교 문화유산 되찾기 공동 본부들이 좋은 명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는 남, 북한 사찰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한 21세기 오염방지 운동이다. 일곱째는 양쪽이 이념들을 시행할 수 있는 남, 북한 불교 공동 기획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일주스님의 대북한 방문을 환영하면서 7개항을 중심으로한 민족 순수 종교로서의 이해 증진에 큰 성과가 있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하는 바이다.

방북안이 능사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 무슨일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

깃발만팔

외국인 노동자



김백근

미군들에게 초콜릿을 얻어 먹고 미국 만세를 부르면 때가 있었다. 우리들 누나들이 그들의 노리가 되고 형님들은 영어를 필수적으로 배워 그들 막사를 기웃거렸다. 미국사람 곁에 있는 것이 힘이였다. 권력이 나왔고 돈이 나왔다. 당시 공황은 늘 눈물을 흘렸다. 미국으로 떠나는 한국인들.

자금은 어떤가. 공황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에 처를 떨던 우리 형님들은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똑같이 기생관광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어떤 우리도 많이 컸다. 한국인을 폭행하는 미군들에게 너희나라로 꺼져라라 말까지 서슴없이 내뿜는다. 미국과 맺은 행 정절정은 불명분하며 담장 고쳐야 한다고 고향을 지른다. 국운이 왕성하다. 어떤 이는 단군 이래 가장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 미국은 안보이외엔 더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니다. 그간 밤은 설움이 서늘을 뽀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외국인들이 불려왔다. 우리 누나, 형님들이 미국으로 물러가듯 못사는 나라의 왜소한 사람들이 불려왔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밑줄을 주고 있는가.'

때리고, 강간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욕하고, 가슴깊이 모멸감을 심는 한국인들. 그들도 어렵게 항공료를 마련하고 공항에서 눈물을 뿌리며 한국에 왔다. 그들은 고국을 그리며 밤마다 울 것 이다. 불림없이 순전히 가난때문에 한국에 와서 오로지 돈을 좇아 숨이사는 그들이 불과 20년전의 우리를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시골하는 가족들을 떠나와 눈물짓는 그들에게 한국의 돈이 그렇게 추하게 각인되어서야 될까. 결국 동남아를 여행하는 한국인에게 그들은 '후한 한국인'이라 욕한다.

문제는 정부의 방관이다. 인력이 모자라 소위 인력을 수입하고선 적당히 방치한다. 불법체류를 어느정도 묵인하면서 그리고 작은 기업들을 위한 적 생색을 낸다. 그 부작용은 예서 외면해 버린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잘 부리는 방법을 홍보하기보다는 그들이 쫓겨나면 돈을 벌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다.

편집기자회 회장

LAN의 역할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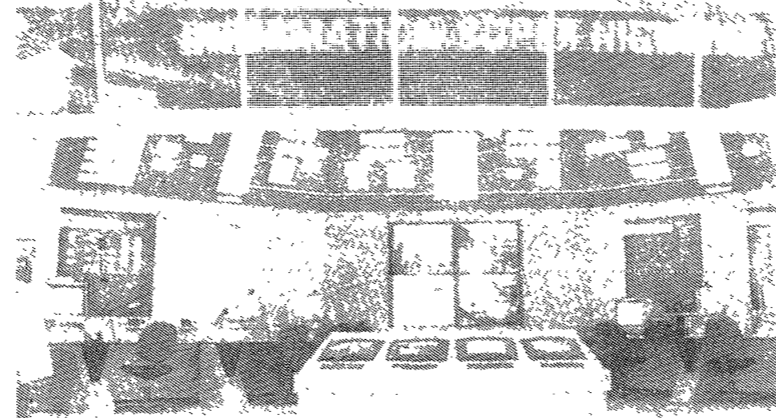
3천만명정도 이용자들, 교육·연구에 유익하게 활용 기존의 틀 벗어나 입체적 사고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엄기현

(공과대 컴공과 교수)

잘 발달된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결합으로 매우 유용한 도구가 출현하고 있다. 바로 컴퓨터 통신망(network)이다. 컴퓨터 통신망은 독자적인 기능을 갖춘 컴퓨터와 이들을 통신장비의 통신회선으로 서로 연결한 통신 체계이다. 컴퓨터가 설치된 곳을 노드 또는 사이트라고 한다. 컴퓨터 통신망은 사용자들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광역망, 대도시망, 그리고 한 대학 정도의 지역에 있는 컴퓨터 자원을 묶은 근거리망 등으로 분류한다.

각 LAN을 서로 연결하면 더 큰 규모의 컴퓨터 망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컴퓨터망으로는 전국 규모의 교육망, 연구망들이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가 구축한 통신망과도 연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통신망으로는 INTERNET, BITNET 등이 있다. INTERNET통계에 의하면 현재 이용자가 3천만명 정도이며 최근 2년5% 정도의 급진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용 부문별로는 대학 교육이



50%, 연구가 25% 정도의 거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쓰이고 있다. 교육과 연구활동에 매우 유익한 수단이라는 의미이다. LAN이 우리 나라 대학에는 아직 크게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년부터 수년 이내에 우리 학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이 LAN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비아프로 대학의 세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LAN은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정도의 구축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가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다양한 고급 응용들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그 진가가 발휘된다. LAN의 기본적인 응용으로는 사용자 개인끼리 서신을 주고받는 전자우편(E-mail)과 공지사항을 읽어 볼 수 있는 정보광장을 들 수 있다. 대학에서 크게 기대되는 것은 전자도서관이다.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와 색인을 수록한 컴퓨터(서버, sever)를 LAN에 접속해 두면 사용자는 다른 컴퓨터를 통하

여 원하는 자료를 언제든 어디서든 검색하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INTERNET에 접속하여 세계 곳곳에 산재한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사공을 넘어 세계속에 들어가 벌이는 활동이다. 거꾸로 우리를 세계에 내보낼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듣는 전공 강의나 외국어 학습도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는 재택 수업이나 원격 학습도 가능하다. 또 어떤 행정 서비스도 one stop shopping 개념으로 받는다. LAN은 대학 사회의 전통적인 모습과 생활양식을 새로운 형태로 이끌어 갈 것이다. 예전에 비해 불가능하던 많은 일들이 이제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꿈 같은 생활은 당장에 우리에게 거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과 시간 투자와 함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실제세계에서는 LAN에 의한 변화가 생각보다는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되는 구비 조건이다.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믹스가 있는 커피타임

어디서나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신다.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믹스.
우리가 있는 곳엔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믹스.
우린 젊기에...

스틱타임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믹스

◇ '포스트 중후군'의 실제

각종 포스트주의에 '욕망'문제로 설정돼...

사회변동을 이성적으로만 해명한 맑스주의 비판·해체

적어도 지금까지-특히 한국-욕망문제는 이제 철학이나 인류학, 미학, 심리학 등 지금까지 그것들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간주되던 데서 벗어나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해 온 사회이론과 같은 기획들(Projects), 특히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하는 것은 생인의 문제들에 대한 이상학에 대한 니체와 하이데거의 비판은 탈현대적 사상의 큰 줄기를 형성하였는데, 푸코도 지금까지 철학이 이야기하였던 분명하나 요소스러운 나의 동일성-즉 나는나다-대신에 많은 나들이 연결되고 해체되고 그리고 결합되고 배제되는 공간이 열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히의 문제설정은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억압 가설', 즉 17세기 이래 성에 관해 어떤 표현, 언설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검열이 이루어졌다는 가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해방의 원리로 파악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사회심리학을 통해서만 대중의 신비주의적이고 환이상학적인 경향을, 즉 대중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맑스주의가 프로이트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라이히에 따르면 프로이트 1) 의식은 성적 생활의 조그만 부분일 뿐이고, 2) 성적인 것과 생리적인 것은 다른 개념이고, 3) 어린이의 성은 보통 성적 행동과 성적 생각에 대한 처벌의 공포(거세 콤플렉스)때문에 억압되며, 4) 인간 의 도덕률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초기에 부모와 대리부모가 사용한 자녀교육 방법으로부터 내면을 보여주는 대중심리학을 수립하는 데 획기적인 발견을 성취했다.

억압에 대한 반역마저 억압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사실 반역의 금지 자체는 무의식적이다... 이 것의 결과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두 경우, 한마디로 말해서 반동적 사상으로 나타난다"

욕망에 관한 문제가 고유영역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

주제-객체 관계로 파악하는 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와 하이데거의 비판은 탈현대적 사상의 큰 줄기를 형성하였는데, 푸코도 지금까지 철학이 이야기하였던 분명하나 요소스러운 나의 동일성-즉 나는나다-대신에 많은 나들이 연결되고 해체되고 그리고 결합되고 배제되는 공간이 열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히는 맑스주의와 프로이트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동시에 양자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맑스주의는 맑스에게 그 기원을 두지만 파시즘이 창궐하고 있는 1930년대의 상황에서 '맑스주의'로 표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 스탈린에 의해서 그 변형과 오류가 구체화된 맑스주의 일반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의 문제는 모든 것을 경제주의적으로 해석되므로 인간의 심리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생산과 욕망의 관계는 부정되거나 도구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의 적자, 약화된 산업경쟁력-에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레비나 자신은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한 우경화된 철학자였다. 전세계의 좌파권 우파권 간에 자본주의를 변혁(개혁)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현대 이후, 반현대, 초현대)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계몽과 이성을 축으로 하여 구성된 현대의 진원지 서구가 18세기 말부터 프랑스로부터 종교개혁,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을 억압과 무지로부터 해방시켜왔다는 긍정적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류역사 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대한 비판은 이미 19세기말에는 세기말(fin de siècle)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은 탈현대(Postmodern)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성이라는 고문의 도구가 사실은 '나'임을 주장하며 해체를 말한다

하이데거적 영향과 흔적이 오히려 프랑크보다 오히려 적으나, '나'라는 '고독한 왕좌'는 독일 강단철학에서 자의식문제에 남아 있다. 이러한 '자의식'의 철학은 주어진 '나'가 목적인 '나'를 통치시키는 반성인데, 이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나는 나의 집의 주인이 이미 아니라는 명제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가 실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고, 라캉은 프랑스어 '나를 안다'(me connaître)는 말이 '오해하다'(meconnaître)는 말로 틀리는 것처럼 '나는 존재의 결핍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성의 중심이라고 믿는 '나'가 세계구성의 주인이라는 철학에 대하여 '이성은 고문이다'라고 항변하고 이성이라는 고문의 도구가 사실은 바로 '나'라고 주장한다.

어린시절 성적억압이 왜곡된 성격구조를 만들고 권위주의 사회를 만든다

현실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의 페트로 생산과 노동을 사회적 과정의 핵심부에 놓지도 않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또는 그로인해 대중의 욕망을 억압한 것도 사실이라면 욕망을 충족하지 않은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따라서 문제는 '생산'과 '욕망'사이에서 생기는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실은데 여기서 양자택일(?)은 계속되어 이 관계를 사고하는 것은 인안학 무책임의 태도이다. 욕망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도구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나 욕망을 생산과 전적으로 무관한 운동으로 보는 것 모두가 잘못된 생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내어 양자가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쉽게 말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때도 양자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기 때문이다. 더욱 더 발전적인 대안의 모색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거시적 미시적개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요구자체가 이성의 억압적 기능인가?

그러나 현대 속에서 원자화되고 분절된 개인의 부정과 집단주의적 재구성이 파시즘적인 발달상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사회화된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요한 과제를 연구한 이가 빌헬름 라이히이다.

푸코는 억압가설을 통해 욕망을 해방원리로 본다

것이다. 통속맑스주의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의식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는 점, 즉 그것이 경제적 존재에 의해 직접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여 배가 고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도덕질을 했다면 과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라이히가 볼 때 '설명되어야 할 것은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왜 도덕질을 하지 않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왜 과업을 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이다.

오재섭 (경상대 경제학과)

김의창 (성경대 정보산업학과 교수)

2.1라이히: 억압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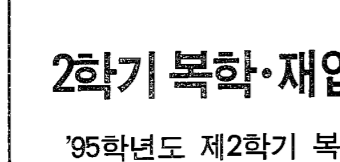
2.2라이히: 억압가설

2.3라이히: 억압가설

2.4라이히: 억압가설

2.5라이히: 억압가설

말 하나 천 강에 정보화 사회에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의 크기가 수십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거의 수직적 운영 조직은 수평 조직으로 바뀌고 생산체제도 대량 생산 체제에서 고객의 개성을 중심으로 한 소량 다품종 주문 생산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최근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속에 우리도 무언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국제 환경속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왔다. 시간의 흐름은 우리를 정체의 늪에서 안주할 조그마의 나래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의 대학 생활! 정보화 사회에 살아갈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 1만불 미만의 중진급 시대에는 하나의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 능력없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1만불이 넘는 선진국 시대에는 한사람의 생산성이 한계에 이를 것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절약하는 겸손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전문 지식과 능력이 없다면 정보화 사회에 도태될 것이다. 물론 다방면에 많은 지식은 쌓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고한 인격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리적인 인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는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 시스템 도구 사용에 대한 사용의지와 개선 노력이다. 기업의 경영 정보 시스템의 질적 향상과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주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사용자가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각종 워드 작업이나 통계 처리 작업 그리고 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공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 시스템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셋째, 요즈음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맹목성 인하여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고 해결하려는 능력이 부족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 멀리만 느껴졌던 미국이나 유럽들도 이제는 통신망을 통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열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지 못하면 파급 효과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는 많은 관련 서적과 잡지들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의창 (성경대 정보산업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95학년도 남·여 신입생 모집(주·야)
1. 교육과정: 2년과정
2. 모집인원: 400명(주간, 야간)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응시자격: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5. 원서교부/접수 기. 일시: 95년 6월 19일(월)~95년 6월 30일(금) 09:00-18:00 (토, 일요일도 교부/접수함)
나. 장소: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교학과
6. 면접일시: 95년 7월 4일(화) 13:00
7.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특별전형(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가산점 부여함)
가. 전문대학졸업이상 학력자
나. 자격증소지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발행)
다. 이간지원자중 취업자
9. 특기사항
가. 본인 졸업자에게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국가기술자격정정시2급(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사무정보기기응용)시험 응시자격 부여함.
◇ 상급 자격증 1종목의 자격증 취득시 국가기술자격 2급 정정응용 응시자격 부여함.
◇ 국가기술자격증 2급 취득후 2년 실무경력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국가기술자격 1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함.
나. 국가기술자격증 2급 취득시 대학졸업학력 독학사 시험 4단계중 2단계 면제다. 취업상당시 운영(졸업생의 97%이상 취업률)
라. 유학 및 현수회장자는 해외소재대학교에 학비장면 및 입학추천
10. 교육환경
가. VAX6310 중형컴퓨터, P.C.IAN구성, 시청각교육실, 자율실습실의 우수한 실습시설
나. 대학캠퍼스내에 위치한 쾌적한 교육환경 및 다양한 편의시설
다. 총학생회 및 학생동아리 주관의 대체로운 학생행사.
라. 250여석의 좌석과 10,000여종의 전공서적을 보유한 열람실.

2학기 복학·재입학원 접수
'95학년도 제2학기 복학·재입학원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복학원신청기간: '95.8.16(수)~8.18(금)
2. 재입학원 신청기간: '95. 8.21(월)~8.22(화)
3.복학대상자: 가.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만 1년 이하(학사내규제44조3항)
나. 일반휴학기간중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 는 학과의 학생(학사내규 제47조 1항)
다. 병사휴학자로서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95.9.19이내)
4. 재입학 대상자: 가. 학칙 제53조 ①항에서 ⑥항에 의거, 제적된 자로서 재 입학을 원할 경우(학칙제16 조 및 학사내규제14절)
5. 신청절: 가. 일반복학원서 1부.
나. 군복학자-1) 복학원서 1부.
2) 전역일자기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재입학자-1) 재입학원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일반휴학원신청
'95학년도 제2학기 일반 휴학원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신청기간: '95.8.28(월)~8.30(수)
2. 신청자격: '95학년도 1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가. 가사 또는 개인사정이 있는 학생
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4. 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는자는 휴학기간만료 제적됨.
1995. 6. 5
교무처장

수강 신청 공고
'95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 간: '95. 6.14(수)~6. 16(금) 3일간
2.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소속대학 교학과, 학과
3. 대 상: '95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전원
4. 유의사항
가. 교과목의 학수, 강좌번호, 학점, 담당 교수명 등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 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수강 신청을 하기 바람.
다. 제1학기 개인별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학과에서 교부받기 바람.

교수 도서미납 심각

5월 현재 도서미납교수 40여명

도서미납교수들로 인해 도서관의 업무가 심한 지장을 받고 있다. 도서관(관장=정병호·국민윤리학과)은 도서미납교수들에게 지난 5월 독촉장을 보냈고 이번달(6월)에도 독촉장을 보낼 예정이다. 학생과는 달리 교수에게는 한번의 대출로 20권 1백80일의 대여기간과 미납할 시 다시 90일의 연장기간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교수가 많아 도서관은 연장기간으로 넘어간 교수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또 90일의 연장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납을 하지 않을 때엔 시가 2배의 변상액과 정리비용 1천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방중 환경 개선 공사

관재과(과장=하정운)는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학교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제반공사에 들어간다. 현재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명진관을 제외하고 교수연구실이 밀집한 건물 100V에서 220V로의 전기승압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후문과 만해시비주변, 학림관, 분수대, 해화관, 원흥관주변의 조경공사에 들어간다. 또한 방학기간 중 LAN시스템 설

치와 백상의 집 앞의 도로포장공사가 있으며 방학시작후 2개월간 사법대등 건물의 화장실공사가 진행된다. 도서관, 교수회관의 참문 샷시 설치하는 오는 26일부터 2, 3개월간 시행된다.

지자체·통일 교양

제27대 불교대학생회(회장=김인성)는 매주 토요일, 불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통일에 대해 교양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10일=지방자치제의 의의와 6·27선거가 가지는 의의 △6월17일=6·27에 일하는 청년학생의 자세와 활력, 통일의 의의 △6월24일=통일을 가로막는 것, 통일로 가는 길에 나서는 청년학생회의 길.

학과소식

국문과 6월22일부터 26일까지 파주보관사에서 '창조교실'을 가질 예정이다.

일문과 추상재 원어연극배우를 지난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문과 1학년 학생들을 주대상으로 15명 이상 모집한다.

응용생물학과 오는 29일부터 7월4일까지 '연합제여행'을 오대산 동국연습원·낙산사에서 갖는다.

역사교육과 학생회관 2층 전시장(세미나실)에서 학부전시회를 오는 6월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

교육학과 오는 6월 9일 4시 만해광장에서 재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와다나베 망언규탄대회

본교생 2명포함 48명 연행

지난 6일 일본문화원 앞에서 60여명의 대학생들이 한일합방이 합법적이고 아직도 유효하다는 '와다나베'의 망언규탄집회를 갖던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10명의 본교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또한 전 문과대학생회장 박무영(영문4)군이 누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응급수술이후 성동병원에 입원중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중 48명이 연행되어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한국통신노조집합투쟁...'

청년학생결의대회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 소식 이후 '한국통신노조집합투쟁 및 노동운동단합 분쇄를 위한 청년학생결의대회'가 지난 6일 고려대에서 본교생 50여명을 포함한 3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교편 감사문제 다시 논란

감사주체·합의사항 효력발생등 문제

해결구면에 접어들 듯 했던 교직원감사위원회(위원장=정연하·역교3 이하) 교편 감사 문제가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중 마지막 항목인 '감사는 총학생회최상 최고 감사기구인 총대의원회가 실시한다'의 견해 차이로 다시 논란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구두합의 이후 지난 1일 교편 정연하위원장은 총대의원회(의장=박대용·불교4 이하 총대) 감부(의장=김영민·불교4) 감사국장에게 교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교편의 입장중 문제가 된 것은 감사에 관한 문제로 교편은 원칙적으로는 자체감사를 내세웠고 다만 감사후 결과를 총대에 전달, 총대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엔 총대소속 1인을 포함하여 재감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국장은 받아들

수강신청 14일부터

교무처(처장=장오연·경제학)는 '9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14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하며 자료집을 12일 배포한다.

교직원 하계 수련법회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교직원 하계수련법회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통도사에서 시행한다. 본교에서는 "신규교수와 직원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며 밝혔다.

천마기 야구대회출전

본교 야구부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부산구덕야구장에서 열리는 제4회 천마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 출전한다. 토너먼트식으로 열리는 이 대회에서 본교는 오늘(7일) 10시에 연세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고시장학생 60명 선발

계산고시학사는 '95학년도 2학기 고시장학생을 7월7일(금) 9시30분에 학림관(401, 402, 501, 502호)에서 본교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60명으로 6월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계산고시학사 사감실에서 원서접수를 받는다. 원서접수자는 학생증내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대상학년은 다음과 같다.

△행정고시(전학년)=영어·헌법·국사 △외무고시(1·2학년)=영어·헌법·국사·문화사(3·4학년)=영어·헌법·국사·문화사·국제정치학 △사법고시(1학년)=외국어·헌법·국사·문화사·민법총칙, (2학년)=외국어·헌법·국사·문화사·민법총칙·형법·경제학, (3, 4학년)=외국어·헌법·국사·문화사·민법·형법·경제학.

컴퓨터 특강 실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환·산공4)는 하계방학기간중 컴퓨터 특강을 실시한다.

1강좌당 50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특강은 OA, 편집실무, C언어로 나누어 있으며 시간은 △OA=9시, 10시, 11시 △편집실무=12시, 1시 △C언어=2시, 3시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교재를 포함하여 OA, 편집실무는 5만원, C언어는 6만원이다.

거시·미시 경제학 특강

경상대학생회(회장=서동욱·무역4)는 7월10일부터 15일간에 걸쳐 거시·미시 경제학 여름특강이 실시할 예정이다.

컴퓨터특강은 초급(도스·워드)과 고급(인터넷)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희전무대

출연을 먹어야...

O... "뉴스경쟁"을 벌이던 TV 앵커와 아나운서들이 대거 정치무대로 뛰어들어 그간 뒤야 온 언어구사력과 깔끔한 외모, 국민적 신뢰를 발휘할 곳을 드디어 찾았다고.

한편으로는 방송인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정치계 재산으로 전용한다는 건 좋지 않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는데.

이에 회전문대자 윌 "방송인 여러분, 경제계의 거두 페로와 정주영도 모두 정치엔 참여(?)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통일맞이 생색내기

O... 통일원력을 맞이 했는데도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데.

다름 아니라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아무 걱정없이 쌀을 제공한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복되는 정부측 발언은 괜히 생색내기 에 급급한 모습인듯 하다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윌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 게 하라는 성인의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핀한 열기

O... 컴퓨터 방해공작이 학우들을 경정의 열기로 풀아가고 있다는데.

다름아닌 공대 공용전산실의 컴퓨터 대부분이 고장인데다 아태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대 뿐인것이 그 이유라고.

이를 본 회전문대자 윌 "독가스 데라보다 컴퓨터부실의 열기가 더 전격적 폼으로 느껴지네요"

하나 더 추가요!

O... 내년에는 한국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한반도가 전쟁가능성을 안고 있기 하지만 무기수입만이 능사인지는 의문이라고.

군비축소가 이른바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사회의 담판과제가 질곡이건만 군비증가의 시의성은 따져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윌 "세계화가 필요한 곳 하나 더 추가요"

◇아간강좌 무엇이 문제인가

신설학과 학회실·교수채용 문제 빈번

학과증설...재원확보 목적 의혹

93년 이후 아간강좌는 폭발적 학과증설로 현재 11개학과, 1개학군, 총학생수는 1천5백여명에 이른다.

93년 정보관리학과가 신설될 당시 아간강좌는 5개학과가 운영중이었고 학생들에게 학문탐구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94년 북한학과, 반도체학과, 전산통계학과에 이어 '95년 중어중문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들이 신설되면서 그 때마다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신설학과와 과학생회실, 전임교수, 교과과정 부재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중문, 신방, 광고학과는 동국대 4층로비를 점거, 학생회실로 사용중이고 '94년 신설한 북한학과는 전임교수가 1명이고 강사들에 의해 모자란 시간들은 메워지고 있다. 올해 북한학과를 신설한 명지대가 이미 2명의 전임교수를 채용 할것과는 대조적이다.

중문과의 경우 연변출신 회계학과교수가 초급중국어 강의를 맡고있고 학생들에 의해 교과과정이 짜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달 25일 아간강좌총학생회(회장=황인구·영문3 이하 아총)는 신설학과들에 대한 교수채용, 학생회실 문제와 '96학년도 학과신설의 원칙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학교측에 보냈다.

학교측은 회신에서 △'94, '95년

도 신설학과는 학과의 교수초빙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초빙하고 △학술문화관이 완공될때까지 동국대 5층로비에 임시 학생회실을 마련하며 '96학년도에 아간강좌에 학과를 신설할 경우 △1학기에 전공교과목이 1개과목만 개설되며 이에 따라 교원책임시간 미달이 초래되므로 1학년 2학기에 초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학년 2학기중 교과과정을 편성하며 △입학전 학생회실을 동국대내에 마련한다는 내용을 학생처장의 명의로 전했다.

그러나 과거, 적절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채용이 무산된 경험이 있고 학술문화관이 완공된다고 공강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간강좌의 진정한 문제는 아간강좌의 폭발적 학과증설이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총측은 '학생, 교수, 직원, 재단 모두가 학원의 제주체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속에서 아간강좌의 모든 학과가 일어서는 것, 과를 신설하는데 있어서의 정형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이 되면 또 어떠한 학과들이 신설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책 없는 학과증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학교측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취재부)



◇ 넘치고 넘치도록...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등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쓰레기 배출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6일 후문에서 학생회관으로 오르는 길 옆에 위치한 쓰레기통의 모습이다. (백도나 기자)

낙산학사 이용 안내

'95년도 하계기간 동해낙산학사의 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장기간: '95.7.1(토)~8.18(금)
2. 시설현황: 서울캠퍼스: 7실, 경주캠퍼스: 3실(1실 20인 수용가능) ※취사 및 취침도구는 개인별 지참
3. 신청자격: 본교 재학생
4. 신청기간: '95.6.13(화)~6.16(금)
5. 신청장소 및 선정방법: 각 캠퍼스의 학생과, 매회차별 선착순
6. 사 용 료: 1인 1박당 1,000원
7. 일 정 표: (1회~16회 매회 3박4일)

1회	7.1-4	2회	7.4-7	3회	7.7-10	14회	7.10-13
5회	7.13-16	6회	7.16-19	7회	7.19-22	8회	7.22-25
9회	7.25-28	10회	7.28-31	11회	7.31-8.3	12회	8.3-6
13회	8.6-9	14회	8.9-12	15회	8.12-15	16회	8.15-18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나 관재과로 문의 요망함.

관 리 처 장

교 육 학 특 강

'95 여름방학 교육학 특강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유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학우들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사 선생님과 협의하여 조정함.

특강 시작일

6월 17일(토) 14:30~16:30
매주 수요일 17:00~21:30, 토요일 14:30~16:30

자세한 시간 일정은 강사 선생님과 협의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 소

학우들 대다수가 교육매체실을 선호하고 있으나 아직 학장님의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이후 결정 나는대로 다시 공고하겠습니다.

신 청

6월10일까지 사범대 학생회로 신청하십시오.
(단 비사대는 수강인원이 부족할 경우 6월12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수 강 료: 재학생 90,000원, 졸업생 100,000원

교 재: 탐구 교육학 上·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생회(260-3661)로 문의하십시오

제27대 사범대 학생회

정부의 교육개혁안 발표에 대한 전국 7만 예비교사의 견해

지난 5월 31일 정부는 그동안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해 온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던 김영삼대통령이 수 차례 걸쳐 혁신적이고 대담한 교육개혁을 수행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대학입시제도의 자율화등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교육현실과는 동떨어진 실현가능성이 적은 방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협의회'와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은 전국 7만 예비교사의 이름으로, 진정한 교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 임용제도의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아래서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양성이 주된 목적인 사범대학을 그 위상과 목적에 맞게 강화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원자격검정령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의 책임하에 교원자격고시를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하며, 교원수급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등교육의 질확보를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급급히 30여명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셋째, 교원임용고시는 그 자체에서부터 우수교원선발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교원자격고시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원에 한해서 책임임용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

네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의 개편은 교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학제개편과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합리적인 사립중등학교 신규교원 공개채용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제27대 사범대 학생회

영학의 패러독스

장예모 감독 '인생'

인간 억압하는 역사·제도 고발성 강해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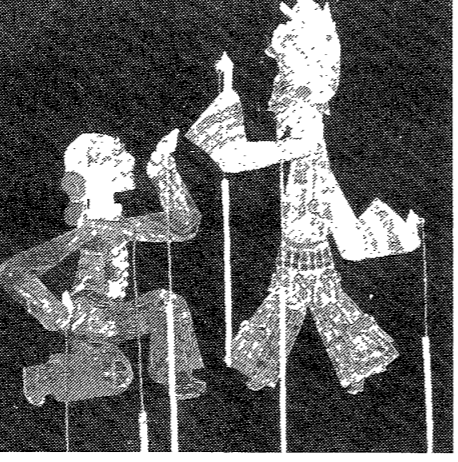
인생은 꿈과 같고, 꿈은 영화같다. 이 영화속에는 남자 주인공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상자가 하나 나온다. 중국의 전통연화인 그림자 놀이 도구를 넣는 상자이다. 그림자놀이란 투사되어진 환영(Illusion), 바로 영화를 말한다. 그 상자에서 꺼내어진 도구는 먹고 싶었던 주인공의 생계유지를 하는 도구가 되며, 죽음의 전경터에서 살아남는 도구이며, 혁명을 수행하는 진지에서 병사들에게 꿈과 위안을 주고, 공장 노동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도구이다.

마지막에 그 도구는 불살라 지는데 그안에는 어린 의손자의 놀이감인 병아리가 들어가 노는 장소가 된다. 병아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유토피아 관념이다. "병아리는 닭이 되고 닭은 거위가 되고 거위

는 양이 되고 양은 소가되고 소는 커서 공산주의가 된다." 물론 이 말은 60년대의 문화혁명적 격동기가 지난후 다시 반복되지만, 소는 커서 더이상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다. 소는 커서 그저 먹고사는 일이 되며, 잡사는 일이 된다. 영화를 담은 상자는 중국의 근대사의 희망과 좌절을, 또 다른 세대의 희망을 담아내는 상자라 의미화된다. 그러한 은유는 이 영화 및 장예모 감독의 깊이요, 오히려 더욱 어려운 장면에 속한다.

이 영화는 3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40년대 일제시대에서의 중국 혁명, 모택동의 문화혁명, 그리고 개방화 이후 현대 중국이 나아가는 삶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부의 삶은 비극으로 점철된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는데 아들은 당관료의 차에 치어 죽게 되고, 딸은 출산하다가 출혈이 심해 죽게 된다. 문화혁명 당시 의사들은 부르조아로 숙청당하고 대신 의학지식이 부

족한 홍위병들이 대신 맡아 하다가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라기 보다 역사의 흐름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당시 중국인들의 대중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은 일개인의 삶을 결코 자유롭게 허용하지 못한다. 역사의 사회를 벗어나려는 개인의 의식은 자유의지라기 보다 발판에 가까운 이기주의이다. 장예모는 서구인이 생각하는 '남만적 개인주의'에 대한 전망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제도가 인간을 억압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측면을 고발하는 것이다. 제도화된 권력속에서 많은 비인간적인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대다수 중국인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또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전 카이제의 '태왕별곡', 전장장의 '푸른 연과 더불어 중국인의 시각에서 읽혀야 하는 완성도 높은 중국 근대사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 옛날 한 마을에는 문을 두드려도 바깥 출입을 하지않는 탈복숭이 거인이 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은 거인의 집은 뿔 나며지 모든 곳에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나무도 가지가 울창해져 가는데, 거인의 집에는 아직도 바람이 뽕뽕 불고 눈이 덮힌 겨울이 갈 생각을 않고 있다. 거인은 두터운 의투를 입고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그 틈을 타고 바깥에서 놀던 아이들이 답을 넘기 시작했다. 그러자 거인의 집은 죽은듯 했던 나무에서 싹이 돋고, 바깥에서만 날던 나비가 달장을 넘어 날아왔다. 봄이 온 것이다. ▲6월, 때는 바야흐로 초여름이다. 거리를 걸다 보면 시원한 생수 한모금이 간절하도록 후덥지근 하지만,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기사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을 웃기는 '뽕'이 눈을 감을 만큼의 썰렁한 기운이

메아리
거인의 집

느껴진다. 명동성당 97년 역사에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개혁종단 출범이후 두번째로 조계사에 최후단이 날아다닌다. 정부는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한 이유를 '범의외에 성역을 둘 수 없다는 국민의 여론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사건과 관련된 농성이 있을 때마다 성당이 정치적 농성장소가 돼서는 안된다는 정부측의 주장도 끊이지 않았으나, 이제 '여

론'이라는 것을 통해 열고 농성자들을 연행한 것이라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91년의 김기철씨 유서 대립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강기훈씨가 명동성당으로 피신했을 때도 경찰들은 밖에서 자진출두하기를 기다렸지만 정부측이 말한대로 '국가전복'과 '통신대란'의 위기가감을 그들보다 권력의 힘을 더 믿도록 만든 것이다. ▲대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이고 '여론'이란 무엇인가, 농성자들이 연행된 뒤, 각종 신문에 실린 이를 악문 노조간부를 보았을 것이다. 이 사진을 보고 울고 있을 그간부의 아이들이 있는데, 정부가 외면하는 또다른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우리의 '거인의 집'엔 언제 봄이 올까. 오늘날도 뽕뽕이 배근해져오는 '세계화 바람'에 전지자가 처질 뿐이다. (리)

캠퍼스문화로서의 배낭여행

정보수집 전제로 목적·알뜰·개발여행 해야

한 나라 가더라도 정확히 아는 것 중요

본격적인 해외배낭여행시즌이 다가왔다. 벌써 몇개월전부터 배낭여행 계획을 세워놓은 젊은이들은 여름방학을 맞으면서 낯선 세계를 접한다는 설레임과 기대로 부풀어 있을 것이다.

지난 89년 해외여행이 자율화되면서 시작된 대학생 배낭여행은 이미 '캠퍼스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2~4학년 학생들은 물론 신입생들도 한번쯤 배낭여행을 생각해볼 정도로 생소하지 않은 단어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유학,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 국제화 바람은 해외배낭여행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해외배낭여행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젊은이들이 방향을 이용해 타지로 여행을 다녀오는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험, 머리식히기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담겨 있다.

배낭여행 초기인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냥 남들이 다녀오니까 나도 가야지'라는 식으로 무작정 배낭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점차 경험이 쌓이면서 최근에는 실속있는 여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동시에 어학연수, 취미, 전공 등 관심분야 공부, 외국대학 탐방 등의 목적을 갖고 여행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떠나는 여행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여행을 대충 훑어보는 걸말고 기숙사관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미술, 음악, 건축, 스포츠, 패션 등 전공이나 관심분야를 꼼꼼히 살펴보고 원하는 것을 얻어오는 여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낭여행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은 많은 나라들이 한곳에 밀집돼 있고 동구권 여러 나라들을 가 볼 수 있는데다 교통이 편리해 여러국가의 역사 문화 생활풍습 등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다고 해서 알찬 여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굳이 유럽을 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한나라를 다녀오더라도 그 나라를 완벽하게 알게 됐다면 대할 나위 없이 좋은 여행인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이나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등이 배낭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속있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수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배낭여행 지침서를 비롯해 가고자 하는 나라의 역사, 문화사, 예술사 등이 실려있는 책 한두권쯤은 마스터하고, 배낭여행을 다녀온 선배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여행일정을 짜보는 것이다. 여행목적에 세운 후 지도를 펴놓고 목적지와 볼거리를 정하고, 이동방법이나 숙박면, 여행경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여행정보노트를 만들면 여행지에서 어려움에 부딪혔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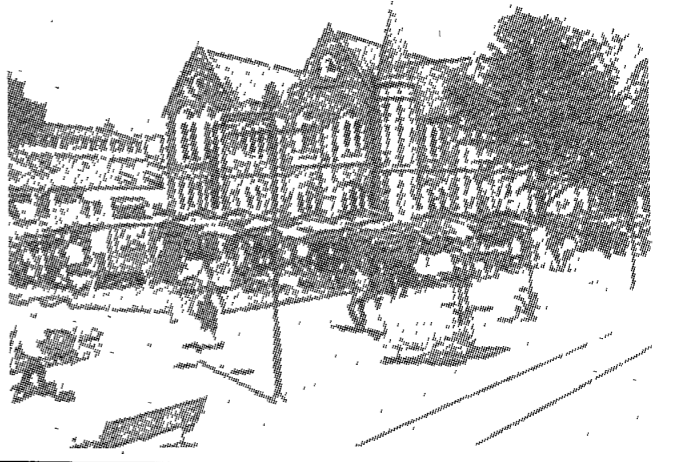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면 일단 안전이 보장되고 숙박면이 쉽게 해결되지만 일행과 일정을 맞추다 보면 배낭여행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젊은이라면 알고 떠나는 여행을 전제로 자유여행과 목적여행, 알뜰여행을 겸한 개발배낭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무전여행' '거지여행'이 알뜰여행은 아니다. 경비의 낭비는 없도록 하되 여행경비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노숙이나 무인승차 등 과거 '어글리 코리아'의 오명을 말끔히 벗도록 해야겠다.

또 박물관, 미술관 등 구경할 것은 구경하고 스파게티 피자 등 먹어볼 것도 먹어보는 '제대로' 된 여행을 즐겨보자.

(문화부)



대학문화

⑧ 머리 쓰기

학사일정의 마지막 휴역, 기말고사가 각단대별로 치뤄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에서 떠나지 않는 구태인 '컨닝'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퍼져간다.

컴퓨터를 이용해 글자 포인트를 아주 작게 만든 컨닝 페이퍼 때문에 잡아내기도 아주 어렵게 됐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컨닝 방법을 후배에게 전수시켜주는 선배도 있고, 컨닝이 가능한 과목, 아닌 과목에 대한 정보도 적잖이 퍼져있는 모양이다.

한 신문의 만화에 대학생의 컨닝을 꼬집은 내용이 있었다. 현대의 박물관에는 고대의 석기유물이 보관돼 있고, 미래의 박물관에는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작게 적어놓은 책상이 진열되어 있다. 그알연 키작은 꼬마가 책상을 열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이 만화는 그래도 미래에는 컨

닝이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긴 하지만, 더 세련된 방법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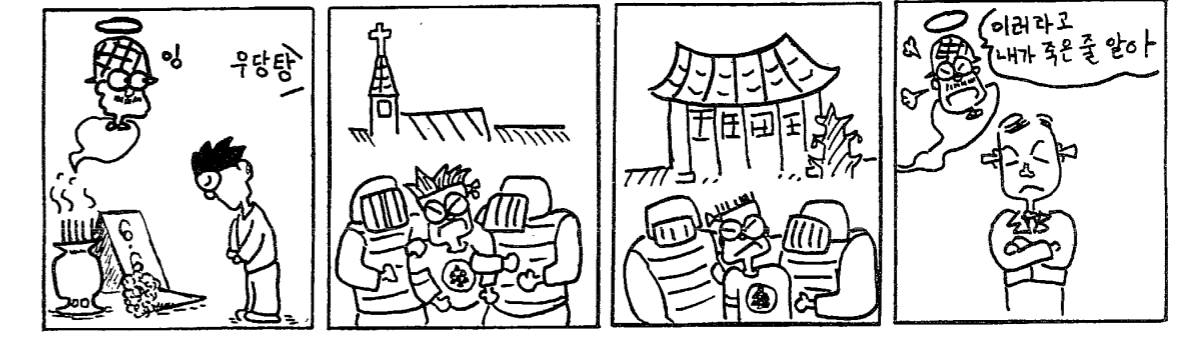
컨닝을 하는 이유는 방법만큼이나 다양하다. 공부를 안해서, 교양과목인데 머리 아프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않을까 해서 등등.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뇌세포가 약 1백억개라고 하는데, 인간이 평생 살면서 7~8개만을 사용하며, 그중에서 한두개만 사용해도 천재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시험을 볼때까지도 벽과 책상에 쓰여있는 영어단어와 수학공식, 시일이 끝난 뒤에 다시 보면서 복습할 것도 아닌데, 눈길 이 팔을 때마다 이마에 주름살만 만들지 말고 지워보는 것은 어렵지. 힘이 좀 들지만, 지우개같은 아주 적다. (문화부)



서승현 (14)



내가 경험한 LG
⑤ 인턴사원 신원석편



계약결혼하는 사람들?



LG화학 해외사업팀에서 1달간 인턴과정을 보낸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은 LG가 인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동양 최대의 그룹 연수원이라 할 수 있는 '인화원'에서는 최고의 시설과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사마다 자사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LG의 경영이념 중의 하나인 '인간존중의 경영'은 21세기를 지향하고 세계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매우 적합한 이념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이를 소유한 집단이 Power Elite로서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재에 대한 투자와 LG가 추구하는 일련의 혁신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예로 LG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자기 스스로 정한다. 즉 "자기설계서"라는 양식이 있어 자기 스스로 업무목표와 업무 달성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시설, 새로운 팀구성, 교육 등)을 회사에 요청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성과에 의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은 회사와 사원들간의 관계가 기존처럼 상명하복 혹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계약결혼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는 겪게 되겠지만 과감히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LG에게서 우리 기업이 나갈 변혁의 방법론을 찾을 수 있었다.

신원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년)
(95 LG화학 동계인턴사원)

